야구 글러브

박심성

요즘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와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아이를 구분할 수 있다. 서로 색깔이 다르다. 옷, 가방, 신발, 손, 얼굴 등의 색깔. 사랑받는 아이들은 밝은 색이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반대다.

그런데, 내 색깔은 까맣다. 정말 슬프지만 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에 속한다. 그래도 누구나 그렇듯이 난 그걸 사실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됐다. 우리 엄마가 날 안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다.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시나리오 작가협회 정회원. 제1회 미주 아동문학 신인상 동화 당선.

우리 엄마는 늘 바쁘시다. 날 기르는 일 외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하시기 때문이다. 엄마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고아원 이름은 '자애'다. 아주 따뜻하게 사랑을 해준다는 뜻이라는데, 난 그 이름이 별로 맘에 안 든다.

그곳엔 아이들이 30명도 넘는다. 그런데 그 아이들 모두 다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 엄마가 다른 애들한테도 엄마란 게 난 싫다. 엄마가 그 애들을 다 사랑해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사랑이 너무 쬐끔일 거 같다. 아니, 난 '자애 고아원'에서 살지도 않으니까 아예 자애를 받을 수도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

난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는 공을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던지기도 할 수 있는 경기다. 축구는 골키퍼가 아니면 공을 잡을 수도 던질 수도 없고, 농구는 골대가 너무 높고 공이 너무 커서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프다. 또, 수비와 공격수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런데 야구는 아니다. 공의 크기도 적당하고, 수비도 공격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야구가 젤 좋다. 또 글러브를 끼면 폼이 근사하다. 그 폼으로 라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면 모두 내 공을 본다. 그렇게 받는 시선이 좋다. 또 축구, 농구처럼 우르르 여러 명이 몰려와 태클을 걸지도 않는다. 그냥 내 공이 어떻게 던져지나 모두 구경한다. 그게 멋지다. 마치 대통령 연설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모두 아주 조용하게 나를 본다. 그러면 난 진짜 주인공이다. 그리고, 타자가 되어서 방망이를 들면 난 이제 공격수다. 축구, 농구처럼 몸 부딪치며 싸우지 않고도 나에게 달려오는 공만 치면 된다. 아주 신사적이다. 반칙도, 퇴장도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구는 그렇게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맡은 걸 한다. 그리고 방망이에 공이 맞아 멀리 날아가면 달리면 된다. 공의 속도만큼 나도 속력을

내 달리면 되는 것이다. 공이 잡히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야구는 부상도 별로 없다. 부딪치면서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다. 그래서 난 야구를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나는 매일 야구 연습을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팀을 짜서 하고, 혼자만 있을 땐 혼자서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나한텐 야구 글러브도 야구 방망이도 없다는 것이다. 엄마한테 3년째 조르고 있지만 엄마는 안 사주신다. 친구들 거 빌려서 하지만, 정말 섭섭하다.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다. 타격이야 막대기로도 연습할 수 있지만, 잡는 건 글러브 없이 연습하기 정말 힘들다. 어쩔 땐 손바닥에 상처도 난다. 이젠 다치지 않게 잘 잡을 수 있게 됐지만, 엄청 고생한 결과다. 그 비법은 한번 바운드해서 잡는 것이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서 맨손으로도 얼마든지 잘 잡을 수 있다. 잡기 연습은 그렇게 한다. 엄마 말대로 내 실력은 그래서 더 좋아졌다. 그래도 난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걸로 받고 싶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남겨두고 난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

엄마께

엄마, 전 이 세상에서 제일루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야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니폼 같은 건 아니구요. 바로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예요. 그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그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소원을 빌었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댔는데……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울어서 그랬던 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 울어요. 엄마도 기억하시죠? 안 울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구 믿어요. 엄마가 산타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호준이 올림

이 편지를 엄마 가방에 넣어두고 난 그날 꿈속에서 야구 글러브를 선물 받았다. 여자 산타한테서 말이다. 그 여자는 바로 엄마였다. 난 좀 영리해서 다 알고 있다. 엄마, 아빠가 산타라는 걸.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외국에 가 계시니까 엄마가 산타를 한 거다. 난 일 년 동안 다쳐도, 맞아도, 혼나도 화가 나도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선물을 받을 준비를 했다. 엄마도 그런 나를 보고 많이 컸다고 칭찬해주셨다. 그래서 난 올해는 꼭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왔고, 난 친구들에게도 이제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를 갖게 될 거라고 자랑을 했다. 아니 야구 시합 약속까지 해놓았다. 크리스마스 전날은 잠도 잘 못 잤다. 너무 갖고 싶은 걸 기다리는 심정이 다 이럴까?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아침이 밝아오고, 난 크리스마스트리 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엔 야구글러브와 방망이는 없었다. 혹시 내가 잘 못 알았나? 온 집안을 뒤졌다. 하지만, 없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도 눈물을 꼭 참고 혹시 내가 일 년 동안 운적은 없었나 생각했다. 한번 운 적이 있었던 거 같다. 이모네 집에서 길 잃어버리고 무서운 아저씨가 쫓아와서 딱 한번 울었던 거 같다. 그것 때문일까?

다시 크리스마스트리 밑에 갔다. 그리고, 혹시 잘 못 보았나 다시 찾아 보았다. 책같이 네모로 생긴 선물만 있었다. 그리고 카드에 내 이름이 써 있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이다. 뜯어보았더니 역시 책이었다. 난 펴보지도 않았다. 그냥 카드만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에 엄마가 '자애 고아원' 크리스마스파티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나는 엄마가 말을 시킬까봐 차 안에서 그냥 자는 척 했다.

'자애 고아원' 크리스마스 파티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았다. 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만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갑자기 배

가 아팠다.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을 가는 길에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다. 바로 화장실 건너편 운동부실에 야구 글러브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몇 개나. 난 갑자기 벽으로 몸을 붙였다. 그냥 아무에게도 안 보이게 숨고 싶었다. 화장실 가고 싶던 마음도 없어져 버렸다. 자꾸 눈이 뜨끔뜨끔 뜨거워지더니 눈물만 흘러 나왔다. 엄마는 내 것만 안 산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왔다. 추운 겨울 밤 하늘의 별이 바르르 떨며 나를 보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서린 자애 보육원 창 안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었다. 엄마께 선물을 준 아이들은 엄마가 선물을 뜯고 웃으시자, 자기가 더 좋아했다. 엄마는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세상에 나만 단 혼자인 거 같은 외로움과 슬픔이 추위와 함께 밀려왔다. 꽁꽁 언 손을 녹이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주머니에서 무언가 잡혔다. 꺼내 보니 아까 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있던 카드였다. 엄마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아들 민우에게

민우야, 크리스마스 축하해. 엄마가 산타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산타할아버지 말씀이 자신이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울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더구나. 네가 갖고 싶은 걸 네가 먼저 남에게 줄 수 있는 나눔의 마음, 그것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된다 하시더구나,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이 만들어 낼 수 있대.

사랑한다. 우리 민우

다시 창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

라 주고도 있었다. 난 창에 더욱 가까이 얼굴을 댔다. 아이들의 표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만 창문이 열리고 말았다. 파티하던 모두가 놀라서 나를 보았다.

그리곤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하얬다. 손도, 신발도, 옷도 모두 하얬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 얼굴이 하얗다고 난리다. 손도 너무 하얗다고, 신발도 너무나 하얗다고 부럽다고 야단들이다.

이송희

할머니 주머니

할머니 주머니에는 없는 것이 없다
아빠가 찾으시는 이쑤시개
엄마가 떨어뜨린 머리핀
동생이 울면 주시는 쵸코렛
매일매일 내 주셔도 없어지지 않는
할머니 주머니는 요술 주머니
할머니 주머니에는 없는 것이 없다
아빠에게 주시는 부탁 "운전 조심해"
엄마에게 주시는 위로 "힘들지"
동생에게 주시는 사랑 "아유 내 이쁜 새끼"
매일매일 말하셔도 없어지지 않은
할머니 주머니는 요술 주머니

1958년 서울 출생. 1984년 미국이민. 제1회 미주 아동문학 신인상 동시 가작. 현재 미 워싱턴주 거주.

2007년 미주문학 신인상 동시 부문

이선자

까마중

혹시
까마중을 알고 있니?
아기 손톱만한 하얀 꽃잎이 진 뒤
완두콩 닮은 조그만 초록 열매
까만색으로 익어 조랑조랑 달고 있는

나는 오늘
LA 자바시장 주차장에서
갈라진 시멘트 틈새 비집고 나온
반가운 까마중을 만났지

1956년 경기도 출생. 1997년 신사임당 동시 부문 입상. 1999년 미국 이민.

너는 어디서 날아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조랑조랑 열매를 달고 있는 게야

어릴 적
담 낮은 밭뚝 길이나
개똥 참외 열리는 가시 철망 곁
텃밭에 심부름 갈 때
흔하게 보이는 한해살이 풀

그 시절이 그리워
고향으로 달려간다

그래
내게 이땅이 힘에 겨울지라도
LA 까마중 시멘트 틈새 피어나듯
나도
조랑조랑
까만 열매 달아야 하지

입상 소감

오래 전, 제 마음에 〈동시〉를 씨앗으로 심으시고 일일이 물을 주고 보살펴 주신 본국의 신현득 선생님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고단한 이민생활에 그래도 잊지 못하고 있던 글쓰기…….

LA자바시장을 동동 거리며 살아가는 아이.

차창 밖으로 보랏빛 쟈카란다를 바라보며 꽃 내음을 물 들이는 아이가 가슴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사각사각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나보다 더 기뻐해준 남편, 교회 식구들, 은혜, 재국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의욕을 되찾게 해주고 내게 용기를 불러넣어준 재희에게도.

끝으로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출발에 낮은 마음으로 또박또박 발 걸음을 내딛으며…….

동시 입상작(가작) 심사평

「까마중」은 고향에서 자주 보는 한해살이 풀이지만 이곳에도 흔히 널려있는 풀이다. 조그맣고 까만 열매가 조랑조랑 달려있다. 어렸을 적 소꿉놀이 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반갑고 다정한 풀 열매.

일터 주차장 시멘트 틈새에서 까마중을 발견하고 힘겨운 이민살이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마음을 눈에 선하게 잡아 내었다. 문학적 성취의 유무에 앞서 이만하면 동시를 짓고 동요를 만들 마음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보아 이선자의 「까마중」을 입상작으로 뽑는다. 더욱 정진, 정진하기를 바란다.

— 정해정, 홍영순.